

보도해명자료 (‘17.10.2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경제기여효과 1,760억(원전운영) vs 276억(원전해체)
‘작은파이’ 고집하는 靑 (‘17.10.23. 문화일보 5면 종합)

1. 기사내용

- ☐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내 원전1기의 연간평균 운영비용 가운데 국민경제에 다시 순환하는 비용이 1,760억원인데 비해 해당 원전의 해체시 연간 국민경제 재순환 비용은 27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됨
- ☐ 국내업체가 이미 보유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포기하고, 해체기술에 정부 역량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

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해명

- ☐ 보도에 인용된 ‘원전 운영 대비 해체시 국민경제 기여도’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님
- 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설비운영·안전 관리 등 전문기술과 인력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,
 - 나아가,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바, 원전건설 및 원전운영기술을 포기한다는 同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※ 관련 문의 : 원전환경과 안창용 과 장(044-203-5340)
한주현 사무관(044-203-5344)